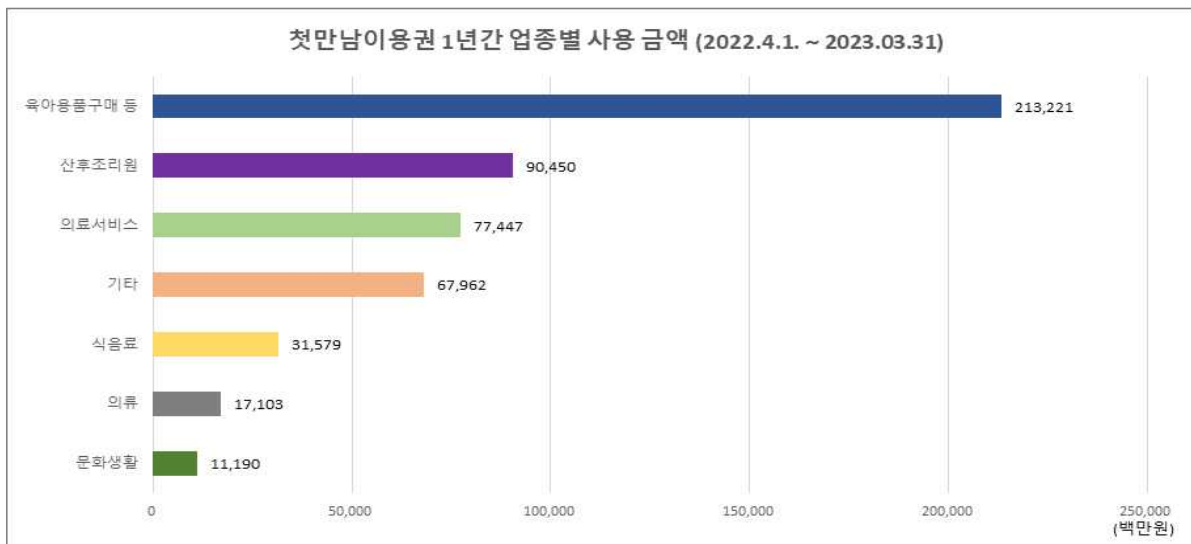


배 포 일	2023. 4. 11.(화)	담당부서	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
책 임 자	박철웅 본부장	전 화	02-6360-6230
담 당 자	정해선 부 장		02-6360-61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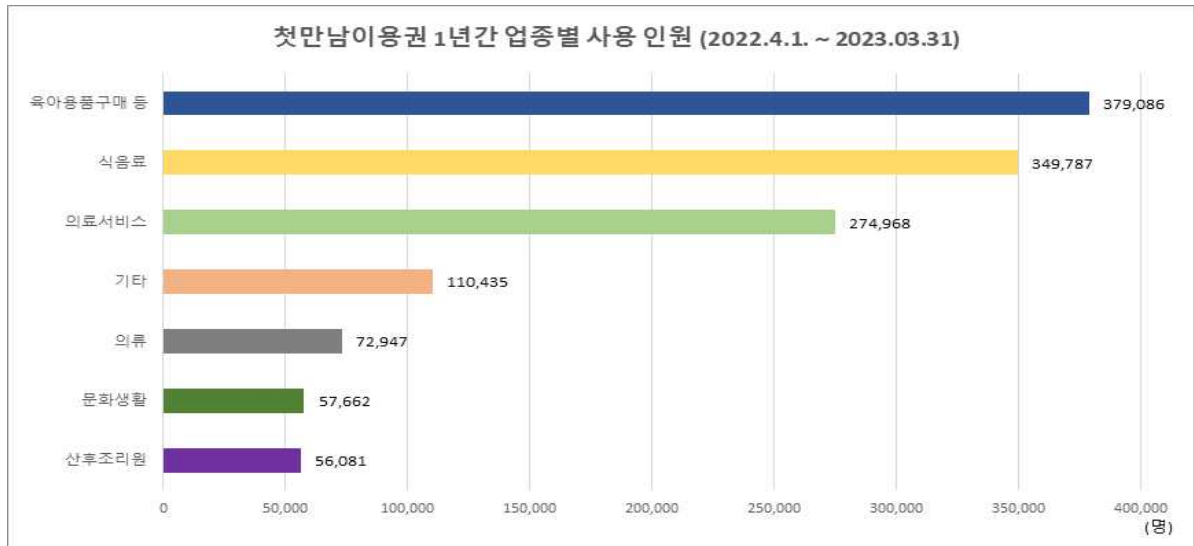
자녀 양육 지원 ‘첫만남이용권’ 사업 1년, 만족도 높아

- 첫만남이용권 1년간 30만3천만 명에게 6072억 원 바우처 지급 -
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(이하 정보원)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‘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’이 지난 1일 시행 1년이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.
- 정보원에 의하면, 지난 한 해(2022년 4월~2023년 3월) 동안 첫만남이용권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약 30만3천 명이었으며 사용 가능 바우처 6072억 중 약 5433억원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
바우처 사용금액은 육아용품구매 등 39.1%, 산후조리원 16.6%, 의료서비스 등 14.2%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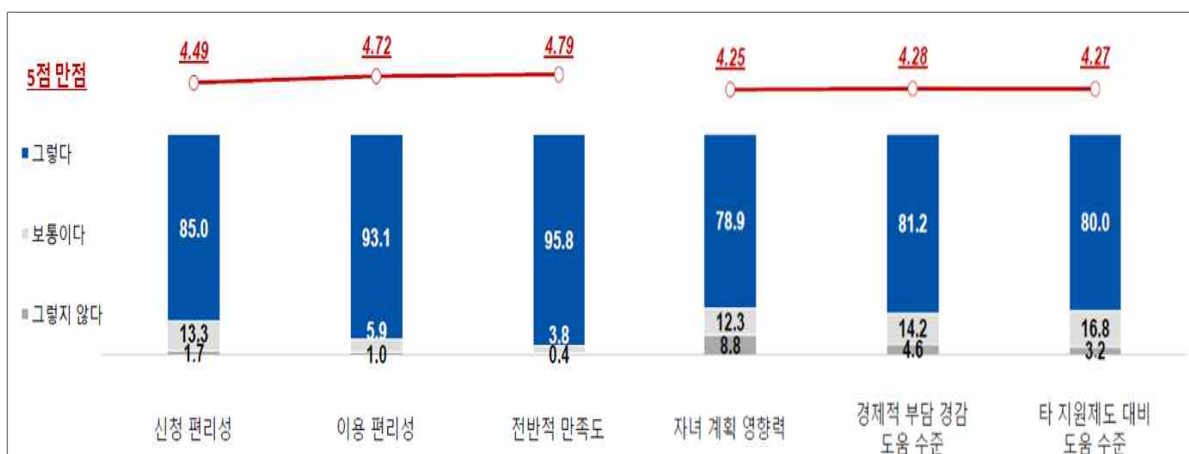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첫만남이용권 1년간 업종별 사용 금액('22.4.~'23.3.)¹⁾



[그림 2] 첫만남이용권 1년간 업종별 사용 인원('22.4.~'23.3.)¹⁾

- 정보원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²⁾ 결과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.79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초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도움 수준, 추가 자녀 계획 수립, 타 지원제도 대비 도움 수준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.
- 서울 종로구 거주 30대 여성 A씨는 “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육아 양육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”는 의견을 보였다.²⁾



[그림 3]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²⁾

-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.
- 첫만남이용권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, 국민행복카드 5개사(BC, KB, 롯데, 삼성, 신한)에 전면 개방하여 온·오프라인 구매없이 아동 양육을 위한 모든 물품 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부모급여,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국정과제 운영과 17종의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.
- 정보원 박철웅 사회서비스보육본부장은 “앞으로도 첫만남이용권을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며, 정부의 저출산대응 정책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¹⁾ 카드사 승인일 기준 : 2022.4.-2023.3. 첫만남이용권 업종별 바우처 사용 인원/금액

²⁾ 2022년 4-8월 바우처 전액을 모두 사용한 2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설문조사 진행